

지역 소식통

김제, 2023 가축통계조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10일까지 가축사육능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사육가구 수·사육 마릿수 등을 파악하는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통계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며 축산법상 가축 20개 축종을 전수 조사해 가축 사육두수 변화와 축산농가 사육동향을 분석해 축산정책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대상은 주요가축 5종(한우, 돼지, 닭, 오리)과 기타 가축 15종(염소, 사슴, 지렁이, 개, 꿀벌 등)이다. 특히, 꿀벌의 경우 폐사와 실종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심하게 농가 지원 등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해 사육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박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축통계조사 결과는 축산물수급안정대책 등 각종 축산정책 수립과 가축방역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사회공헌사업 설명회 열어

완주군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와 협력해 사회공헌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관내 청소년시설 및 교육지원시설, 아동시설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을 공유하고, 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만나 소통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구상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역 아동·청소년 시설들과의 긍정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사회공헌의 가치 실현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완주군의 아동·청소년들의 복지발전과 성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올해 국가예산 5231억원 확보

수소·환경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속도'

완주군이 2024년 국가예산 5,231억원을 확보하며, 3년 연속 국가예산 5,000억원을 달성했다.

정부의 세수 감소와 긴축재정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유희태 완주군수가 정부청사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완주군의 현안 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군 차원에서 적극 대응한 결과 지난해보다 49억원이 증액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국가예산에서 완주군은 수소, 재해대책, 환경 등 군정 전 분야를 고루 확보해 민선8기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수소특화국가산단 유치로 수소산업의 전기를 마련한 군은 △수소차 페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 13억원(총사업비 200억원) △대용량 무정전 전원장치 안전기술 개발 13억2,000만원(총사업비 300억원)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리·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 39억원

(총사업비 153억원) 예산을 새롭게 확보했다.

특히, 수소차 페연료전지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사업의 경우 국회 막바지 단계까지 예산 반영이 불투명했지만, 유 군수의 발품 행정과 안호영 국회의원, 예산안조정심의소위원회 소속 민 이원택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막판 설득에 성공했다.

완주군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까지 다수의 수소 관련 예산확보에 성공하면서 치열한 수소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쥌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질오염총량 개발부하량 확보와 가족번호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군이 중점 추진했던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사업 5억원(총사업비 252억원) 예산도 반영됐다.

침수 피해가 잦았던 용진읍 신지리 상습 침수예방을 위한 △용진 신지 풍수해생물권 종합정비사업 9억8,000만원(총사업비 403억원)을 비롯해 △화산 원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

업 5억원(총 230억원) △공공폐수처리 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2단계) 3억원(총 156억원) △봉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총 55억원)도 신규사업으로 확보했다.

이외에도 향후 호남고속도로 삼례 IC~김제IC 확장, 동상~주천(국지도 55호선) 도로시설 개량, 소양~동상(국지도 55호선) 도로시설 개량 등 대규모 SOC 사업은 용역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광역 및 생활권 연계 도로망 확충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도 및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수소 등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질 의미 있는 신규사업을 다수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신성장 먹거리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10만 완주시대 도약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이 보호대상아동과 가족 간 관계회복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가족 찰칵'이라는 주제로 23곳의 가정에 가족사진을 선물했다.

완주군 보호아동 가정, 가족사진 선물

'사랑하는 우리가족 찰칵' 23곳 가정 촬영 진행

완주군이 보호대상아동과 가족 간 관계회복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가족 찰칵'이라는 주제로 23곳의 가정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했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보호대상 아동들의 가정을 점검하던 중 경제적·시간적 부담으로 가족사진을 찍기 어려운 가족들이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회복과 추억을 선사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완주군 소재지의 사진관에서 진행된 가족사진 촬영은 많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을 이용해 이뤄졌다.

12월 중순 대상 가족들의 촬영이 모

두 마무리됐으며, 보정작업을 통해 액자 제작까지 마쳤다.

촬영에 임한 한 가족들은 "아이 돌잔치 후 사진촬영을 못해서 아쉬웠는데 가족사진을 찍을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가족사진 촬영을 통해 서먹하던 아빠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친구집에 걸려있는 가족사진이 부러웠는데 우리집에도 사진이 생겼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이번 가족사진 촬영이 가족관계 개선 계기가 됐길 바라고, 앞으로도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고향사랑기부제로 6억8000여만원 모금

목표인 5억원 훌쩍 넘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023년도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서 약 6억8,000만원을 모금해 목표인 5억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각지의 향우회원과 김제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남다른 분들이 기부해 4,266건, 약 6억8,000만원의 모금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실적의 성공요인은 시민과 사회단체, 공무원 등 시 구성원이 고향사

랑기부제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의지로 자발적인 제도 홍보 및 상호 교차기부를 하며 꾸준하게 모금 활동을 한 것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다양한 품목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던 것이 주요했고, 여기에 출향인들의 남다른 고향사랑이 더해져 결과가 배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웅비하는 김제 행복 시대를 여는 힘이 될 고향사랑기

부제는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디딤돌이자, 저출산 고령화의 난제를 풀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2024년도에도 고향사랑기부제로 김제를 응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부액은 2024년 청년근로자 알뜰 교통비 지원 및 차매어르신 인공기능 돌봄인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2024년 김제지평선장학숙 신규 입사생 53명 모집

김제지평선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김제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2024년 김제지평선장학숙(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53명으로 남자 25명, 여자 28명이고, 지난 1월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학업 성적(50%)과 가정 형편(50%), 가산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2명 이상) 가정 자녀 등)을 종합 심사한 후 1월 16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신청자격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2년제 이상의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김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선발된 입사생은 올해 2월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년간 생활할 수 있으며, 입사비 7만원(연 1회)과 월 사용료 18~3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입사원서는 신청 기간 내에 김제시청 5층 교육문화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장학재단 홈페이지(www.gimjeolove.kr) 또는 김제시청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김제시 장학재단(☎063-540-3584)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20년 3월에 개관한 김제지평선장학숙은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에 53개의 원룸 형태(1인 1실)로 책상, 침대,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이 풀옵션으로 갖추어 있고, 특히 24시간 상주하는 직원들의 철저한 출입 관리를 통해 학부모들 사이에 만족도가 높다. /김제=곽노태 기자

'올해의 책' 후보도서 19일까지 추천

완주군, 군민 누구나 참여

완주군이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후보 도서를 추천받는다.

3일 완주군은 한 권의 책으로 군민 모두가 소통하고 주민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2024년 완주군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후보 도서를 오는 19일까지 추천받겠다고 밝혔다.

'완주군 올해의 책'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분야에서 연령별 각 1권씩 총 3권의 도서를 선정하며, 선정된 올해의 책을 중심으로 작가와의 만남, 필사 릴레이, 관련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선정 기준은 △국내작가 단행본으로 누구나 쉽게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도서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연계 독서문화활동이 가능한 책 △시 의성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 출간한 도서로 다권본, 만화, 종교·정치적 성향을 지닌 도서, 절판도서는 제외된다.

2024년 올해의 책 후보도서 추천은 완주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완주군 5개 공공도서관 및 8개 작은도서관에 비치된 추천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홍보문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추천하면 된다.

추천된 도서는 서면투표와 주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12권의 후보도서를 선정 후 '책임지는지식도시완주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3권의 도서를 선정한다.

여위숙 책임지는지식도시완주 추진위원장은 "완주군민 모두가 함께 읽고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서 추천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